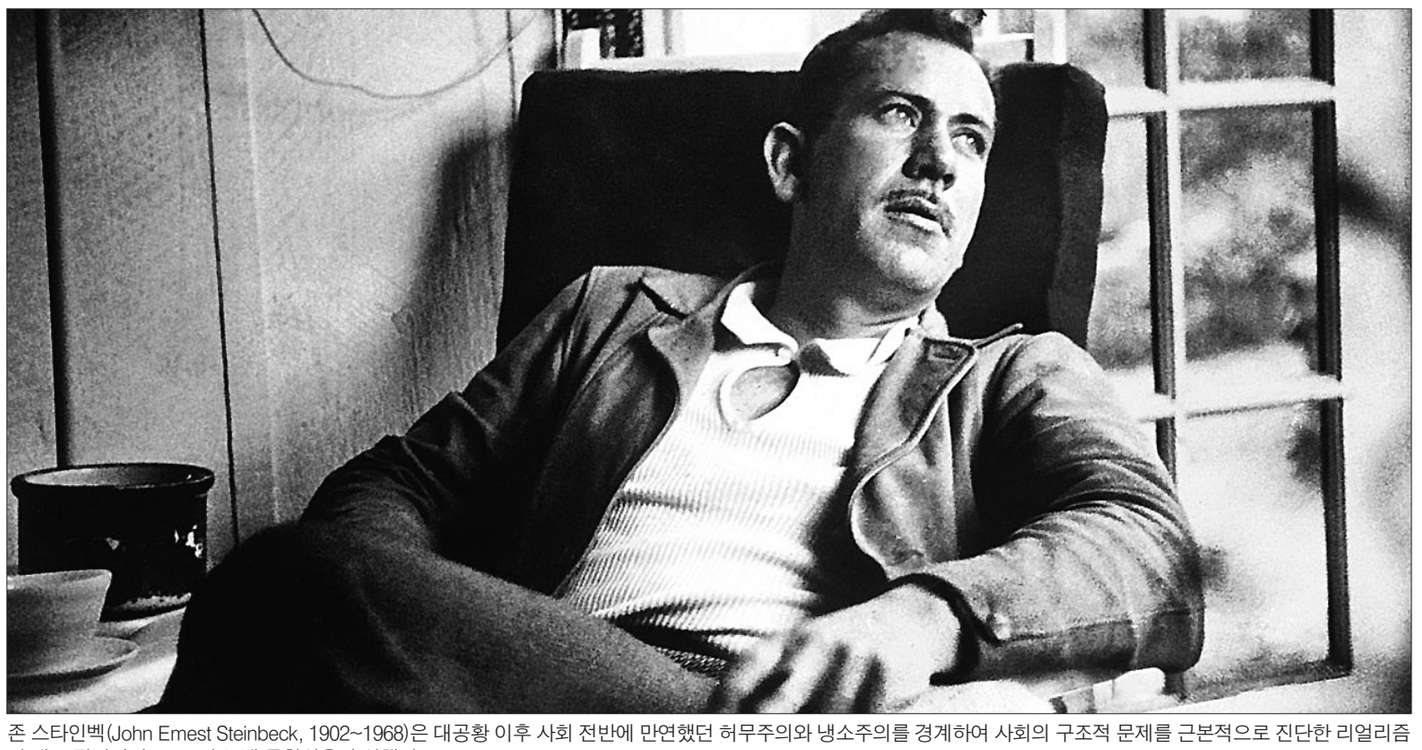
“버려야 얻는다” 무소유의 진리를 설하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⑨ 존 스타인벡의 〈진주〉


존 스타인벡(John Ernest Steinbeck, 1902~1968)은 대공황 이후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경계하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한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이다. 196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우화 원형에 숨겨진 탐욕의 실체

존 스타인벡(John Ernest Steinbeck, 1902~1968)은 190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농장지대인 설리너스에서 독일계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시절부터 농장 일을 거드는 등 고학으로 스탠퍼드 대학교 생물학과에 진학했다. 그가 일했던 농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은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작품 활동에 정서적 · 철학적 인식의 토대가 되었다.

1925년 학자금 부족으로 대학을 중퇴한 그는 문필생활에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뉴욕으로 와서 신문기자가 되었으나 객관적인 사실보도가 아닌 주관적 기사만 썼기 때문에 해고되어 갖가지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 갔다. 〈분노의 포도〉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부와 명성, 모두를 얻게 되었다. 그 후, 스타인벡은 급격히 산업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의 실상에서 부와 인간, 부와 사회, 인간과 사회, 서구와 비서구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멕시코 우화를 바탕으로 쓰인 〈진주〉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가장 잘 녹아 있는 작품이다.

극한의 상황에 처한 주인공 키노에게 진주는 더없이 큰 행운으로 다가왔지만,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스타인벡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과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지극히 사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로써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냉엄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진주〉는 인간의 숨겨진 본능이라 할 수 있는 탐욕의 실체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강렬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스타인벡은 진주를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고통, 희망과 절망을 멕시코 우화를 모태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스타인벡은 서두에서 “만약 이 이야기가 우화라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이야기로부터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내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보게 될 것 같다. 어쨌든,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이라며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줄곧 그 훌륭한 진주가 어떻게 발견 되었으며, 또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뱃사람 키노와 그의 아내 주에노와 그의 아기 코요티토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이미 자리 잡아 버렸다.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하얀 것과 검은 것, 선과 악에 대한 자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결국 〈진주〉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인 셈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뿌리 뽑힌 삶을 살고 있다. 정신적 지주는 찾지 못하고, 막연한 그리움이나 소망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절대고독과 정신적 파행 현상으로 오는 분열증세의 팽배, 그리고 인간 소외의 극대화에 자기를 잃어버린 세대들, 고향과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원초적인 회귀를 우선으로 시도하게 된다. 그것이 곧 우화 원형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 태초의 인간은 누구였는가. 나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의혹은 우화가 상징하는 의미로의 각성을 가져오게 한다. 더불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시적이고 총체적인 파악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현대인의 정신적 기저를 바탕으로 해서 우화 원형의 중요성은 새로워지게 되고, 불교 문학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이러한 우화 원형 비평 안목으로 〈진주〉를 살펴본다면 불교적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무소유’의 개념에 합일을 이룰 수 있다.

〈진주〉에 내포된 ‘무소유’ 사상

‘무소유(無所有)’는 산스크리트어인 시마티가(simatiga)를 번역한 말로, 무소득(無所得)이라고도 한다. 보통 일반 용어로는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하나, 불교에서는 단순하게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가진 것 없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 또는 무지각인 상황을 말하며 무상(無相)과 동일한 뜻이라 할 수 있다.

스타인벡의 〈진주〉는 진정한 자유와 ‘무소유’의 의미를 주제로 다뤘다. 이 작품은 전갈에 물린 아기의 병원비로 인해 노심초사하던 젊은 부부에게 생긴 행운으로부터 물질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려 준다.

바다에서 커다란 진주를 채취하게 된 키노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불행과 행운은 신이 아닌 인간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현실로 승화된다. 인간이 지닌 내면의 갈등을 노래와 색의 이미지로 상징화 시킨 〈진주〉는 독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젊은 부부의 심리 상태를 따라가게 만든다.

멕시코 우화 바탕으로 쓰인 소설
물질과 인간 대한 문제의식 담아
버림으로 자유로워지는 삶을 그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소유와 집착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소유와 집착이 빚어내는 갈등과 대립은 ‘소유욕’에서 시작된다. 모든 욕망과의 단절은 역사의 비극과 인간성의 상실을 경계하며, 욕심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버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한 이 작품의 결미는 그래서 더욱 빛을 발한다.

바닷가에 이르자 그들은 멈춰 서서 멕시코 만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키노는 소총을 내려놓고 옷 속을 뒤져 커다란 진주를 꺼내 들었다. 진주의 표면은 희색빛이었고 궤양처럼 보였다. 악마의 얼굴들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도 보였다. 그리고 진주의 표면에는 웅덩이에 빠진 사내의 미쳐버린 듯한 눈도 보였다. 작은 동굴 속에서 머리에 총알이 관통되어 누워 있는 코요티토의 모습도 보였다.

〈본문 p170 중에서〉

위의 예문처럼 결미에 그려진 진주는 흉측했고, 어둠침침했으며 악성 종양 같았다. 키노는 뒤틀리고 미친 듯한 진주의 노래를 듣는다. 그는 바다를 향해 팔을 뒤로 젖혔다가 온 힘을 다해 진주를 던져 버린다. 인간의 소유욕은 무한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물질을 가지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욕심에 의해 괴로움과 번뇌가 생겨나고, 소유함으로써 그것에 얽매이고 만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란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모두에게 베품을 나눌 줄 아는 자비의 실천 아니겠는가. 모든 욕망과 단절하면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진주〉는 모두에게 각인시킨다.

〈진주〉의 서사 구조는 그래서 더욱 불교 교리와 맞닿아 있다. 인생에서 태어나고(生), 늙고(老), 병들고(病), 죽는(死)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 한다고 해도 인간의 불사영생(不死永生)은 실현 될 수 없을 터다. 자연물 또한 무상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만큼 백 년이나 천 년을 살 것 같은 유상(有相)함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권력과 명예는 영원히 갈 것으로 본다. 탐착과 인색과 교만은 이런 생각에서 나오기 마련이기에 일생 동안 남에게 베품을 나누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윤회의 고리에서 고통 받게 될 일이다. 그러기에 하루 한 가지씩 버릴 줄 아는 삶을 산다면 그도 행복이라 불교 교리는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소유에서 ‘무소유’로의 방향전환은 키노와 주에노가 내린 결론과 일맥상통한다.

노래 · 소리를 어우르는 희망 찾기

〈진주〉에는 인디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노래가 등장한다. 노래는 율격이며, 사람들의 내적 감성을 대변한다. 스타인벡이 작품 전반에 걸쳐 강조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소유’와 ‘무소유’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노래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래의 의미는 인간이 지구상에 생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해 온 행위이며 의식이다. 언어적 표현 또한 노래를 간과 할 수 없다.

키노는 아침 해변에서 찰싹거리는 잔물결 소리를 들었다. 아주 듣기 좋은 소리였다. 키노는 다시 눈을 감고서 자신만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키노만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의 종족 모두가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한때 노래를 짓는데 뛰어났던 그의 종족은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듣는 것들을 모두 다 노래로 만들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때의 노래들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본문 p10중에서〉

키노의 머릿 속에서 그려지는 맑고 부드러운 노래는 평화이며, 단란함이며, 행복이다. 그러기에 키노는 그것을 ‘가족의 노래’라 불렀다. 또한 주에노가 부드럽게 부르는 옛 노래는 단지 세 개의 음조만으로 이루어졌어도 음정은 끝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의 노래’ 즉, 어머니의 모정을 대변하는 소리이다. 이 노랫소리는 안락함이며, 따뜻함이고, 하얗고 순수한 흰색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아기 코요티토가 전갈에 물리는 순간부터 들려오는 노래 소리는 악마의 음성이다. ‘악마의 노래’는 불행을 암시하며, 괴로움과 고통을 수반한다. 검은색의 표상과 일치 되며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

작품 전반의 핵심 소재인 진주는 사람들의 겉과 속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상징물로 존재한다. 카누와 오두막집이 내포하고 있는 공간적 의미는 노래와 소리를 대비시키는 존재의 역할로서 가난한 삶은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진주라는 보석의 의미는 부의 상징과 일치하며, 속박과 두려움을 암시한다. 그 이유는 진주 자체가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다. 모래알이 부드러운 조개의 속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조개는 감수 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조갯살의 생존에 대한 의지가 오묘한 빛을 발하는 진주로 분신되어진다. 키노와 주에노는 물질로 인해 화를 당하고, 악마의 노래는 그들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그들 부부에게 진주는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허상인 셈이 되어 버렸다.

〈진주〉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매한 삶을 돌아보게 된다. 어떠한 상황이든 생각만 바꾸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쉽지 않지만, 탐욕을 없애고 물질을 버린다면 오히려 정신적 풍요를 누리며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악마의 노래가 아닌 가족의 노래로 희망을 찾는다면, 우리 모두는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무소유’ 삶을 찾게 될 터다.

이명진(열린문학회 자문위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고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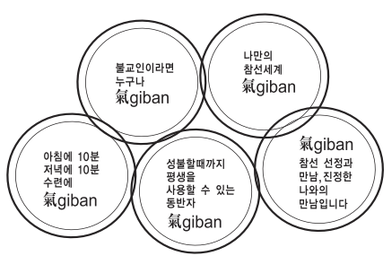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